

나를 흔들고 인생을 흔드는 팔풍

- <行宗紀>에서는 “利衰, 毀譽, 稱譏, 苦樂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 이것을 팔풍이라고 한다”고 했다.
- 바깥세상이 아무리 시시각각 변해도 자기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
- 즐거운 사람은 인생을 경치 감상으로 생각하며 차분하게 생활한다. 반면 우울한 사람은 인생을 장거리 경주로 생각하고 오로지 앞으로 달리는 데만 집착한다.
- 삶이란 원래 번잡한 것이다. 참고 또 참으며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호숫가 풍경을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인생의 다양한 일을 맞이한다면, 번잡한 인생도 전원시처럼 아늑하고 평온해지지 않을까?

호숫가 풍경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이 불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라.